

우선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_\_\_\_\_ 주인공 칸디드는 숙부인 남작의 저택에서 팡그로스 박사의 '모든 것은 최선의 상태에 있다. 즉, 현재의 상태는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이다'는 주장을 굳게 믿어 온 순진한(프랑스어로 '칸디드candid') 청년이었다. 하지만 사촌 여동생 큐네공드를 연모했다가 숙부에게 쫓겨난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병고·조난·지진·종교재판·고문·폭행 등의 처참한 고난을 겪게 된다. 유럽 전역을 방랑하는



## 인간사회 개선에 대한 의욕 잃지 않는 저자의 계몽주의적 정신

강동호 |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중에서 팡그로스 박사를 다시 만나 숙부의 집이 병화兵火에 소실되고 큐네공드도 포로로 잡혀가 하녀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나 칸디드는 큐네공드에 대한 연정을 잊지 않고 갖은 고생 끝에 포르투갈에서 그녀를 만나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 남아메리카로 떠나지만 도중에 큰 재난을 만나 또 다시 헤어지게 된다.

칸디드는 하인과 함께 엘 도라도(이상향)에 당도해 그곳 사람들의 호의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빛나는 돌, 즉 다이아몬드를 가득 얻어 큰 부자가 된다. 하지만 큐네공드를 잊을 수 없어 그녀를 찾아 다시 대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칸디드를 기다리는 것은 자기만큼이나 심한 세파를 겪어 예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추악하고 성미가 까다로워진 여자, 큐네공드였다. 그는 세상의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천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팡그로스라도 재회하여 큐네공드와 함께 자그마한 농장을 꾸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다.

이 부분에서 볼테르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러나 내 발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 인간을 에덴동산에 데려다 놓은 것은 오페라레투르 예음, 즉 신의 발을 경작하기 위함이니까. 이 말은 곧 인간은 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지”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 마지막 경구는 인간의 온갖 비참한 경험과 사회적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낙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사회의 개선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는

저자의 계몽주의적 정신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책은 필자에게 세 가지 충격을 주었다. 첫 번째는 인간 삶의 조건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있다. 오히려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전 속에서 끊임없이 부침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 책의 의도가 아닌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인 칸디드의 원래 의미가 '순진한' 이란 뜻이긴 하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로운 또는 합리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낙관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저자인 볼테르가 만년인 1759년에 출판한 이 책은 전문가들이 평하듯이 동시대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 등 낙천적 세계관을 조소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은 이 책이 사회적 부정·불합리를 고발함으로써 1789년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의 시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 철학 콩트의 대표작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두 번째 충격은 이 책에 그려진 17·8세기 유럽의 처참한 모습에 있다. 사람들은 보통 세계무대의 주도권을 쥔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유럽의 모습을 본래의 이미지로 상상하지만 볼테르 시대의 유럽은 비참한 전쟁과 폭력, 광기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 였다. 더군다나 당시의 유럽은 통일된 나라가 거의 없이 군사력으로 무장한 지방의 영주들이 언제든 이웃의 도시를 공격해 주변 일대를 삼시간에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을 수 있는 긴장과 공포가 일상화된 시대였다. 유럽에 근대적인 국가가 정립하고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가 강조되는 19세기 후반이 되기까지 인간 개개인은 언제든 목이 달아나고 손목이 잘려 불구가 되고 함부로 남의 집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근대 사상가의 한 사람인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인간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묘사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볼테르는 자신의 사상을 비관주의나 염세주의 모두를 배격함으로써 완성한다. 볼테르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운명은 발을 경작하듯 오직 스스로 개척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라며 현실 개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 파리에서 유복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나 예수회 학교에서 공부했으나 1717년 오를레앙 공의 섭정을 비방하는 시를 써 투옥된 볼테르는 영국의 정치제도를 이상화하고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을 비판했다.

이 책이 준 세 번째 충격은 당시의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17·8세기 유럽이 근대로 전환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정조 시대의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만주족이 일어나 중원을 제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평지풍파는 이 때가 되면 조용해지고 경제력도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다가오는 서세동점의 파고 앞에서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실학으로 제기된 사회개혁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득권층의 완고한 벽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가고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생산력의 증가는 양반계층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기강의 해이로 인해 기존 사회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이 책에 그려진 내용만을 보더라도 당시 유럽의 역동성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주인공 칸디드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방랑하는 지역은 유럽 및 아메리카 전역과 터키, 이집트, 러시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유럽인들의 머리 속에 세계에 대한 개념이 벌써 존재해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업가들과 여행객들의 공간적 이동을 가능케 하는 운송수단, 즉 대양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대형범선 등이 이미 확보돼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역사적 기술이다.

이 밖에도 이 책은 근세 전환기의 유럽의 모습을 저자 특유의 명쾌하고 신랄한, 그리고 템포가 빠른 문체로 소상히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세계의 역사, 우리와 유럽인들의 삶과 존재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이 비록 후세에 의해 볼테르의 정치, 사회, 철학사상을 해학과 기지로 풀어낸 풍자소설로 이해되고 있지만, 웃음이 아닌 엄숙함, 경멸함보다는 진지함, 격렬함보다는 냉철함을 바닥에 깊이 깔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의 지난 모습을 깊이 반성케 하는 일종의 '반면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